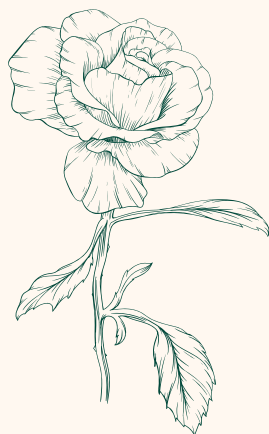


2024



See in(詩人), 봄
올해의, 시

인사말



생명이 되살아나는 경이로운 계절 "봄"
우리는 어찌면...
삶에 지쳐, 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봄이 오는 소리를 잊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꽃향기 그윽한
안성베네스트에서의 25번째 "봄"

아름다운 봄의 소리를 보고 또 느끼며,
내 마음속 한편 작은 꽃을 싹 틔우듯
자신만의 이야기로 표현한
2024년 「See in(詩人), 봄」 당첨 작품들을
정성스레 담아보았습니다.

혹독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짧기에 더 소중한 향긋한 봄의 소리를
올해도 잊지 않고 나누어주신
고객님들의 마음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안성베네스트 직원 일동



따스하다 ‘봄’

이 * 성

참 따스하다.

출근길 봄 햇살이 따스하다.

동네 밖 공원에 벤치가 따스하다.

인사를 건네주시는

경비원 할부지의 목소리가 따스하다.


팀 동료들과 마시는 차 한 잔이 따스하다.

퇴근 후 반기는 두 아이의 미소가 따스하다.

갓 지은 애들 엄마의 솥 밥이 따스하다.

이 봄 모든 것이 따스하다.





날개

이 * 현

언제이던가
속절없이 앓던
허기진 가슴을 안고

이제는 주인 없는 옛이야기 속
하얗게 표백된
어린 몸짓을 기억해 낸다

핏빛마다 고스란히 안고 사는
가슴 벽찬 날갯짓이 고향던
순결한 바람은
인간이라는 못난 이름에
고독 또한 초라한 서러움

숨 가쁜 아우성에
가만
나래질 쳐 보면
한맥 한맥
걸리어진 내 날개는
만신창이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몸짓의 넋을 만나는 날은
가난한 마음 안고
슬픈 날개로 떠나는 날



장원作

봄날의 작은 기적

안 * 재

하늘 고운 날에
봄바람이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춤을 추네

새싹들의 선율 속에 힘차게 날려 보낸 공은
희망을 싣고 높이높이 솟구치더니
앗, 꽃 숲속에 포근히 안기네

따스한 햇살 아래
손에 쥘 클럽은 마법의 지팡이

푸른 잔디를 어루만지며 살포시 밀어낸
희망의 공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꽃잎이 춤추듯 그린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더니
단숨에 둥지 속으로 쏘~옥 행복의 노래가 흐르네

봄날의 향연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품고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네



장원作

어느 젊은이, '행복'이라는 두 글자

이 * 한

구름아 고마워.
하늘아 고마워.
오솔길아 고마워.
천아 고마워.

맞닿을 수 있는 빛의 공간이
흐름이 우리를 영위할 수 있음에

지금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그래서 고마워, ... 그리고 감사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때, 그 순간처럼.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언제나 그랬듯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행복"할 순 없잖아

우리가 우리이기에
우리라는 그때,
"행복"했잖아.

"행복"이라는 두 글자
너, 나, 우리



선비作




오십, 봄

장 * 진

오십의 봄이 왔다

설렘 가득 연인과 손잡고 거닐던 이십 대의 봄
벚꽃 가득 놀이터 그네 밀어주던 삼십 대의 봄
슬픔 가득 사랑하는 엄마 떠나신 사십 대의 봄

그리고 오십의 봄이 왔다
이제는 고목 나무라고 생각했던 내 맘이
안성의 봄 향기 말노라니
아련한 내 봄의 추억들이 눈꽃처럼 흩날린다



선비作

베네스트

진 * 배

베네스트의 꽃길을 본다
인생의 지나간 날을 본다

베네스트의 꽃길을 걷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길을 걷다

베네스트의 꽃길을 느낀다
인생의 아름다울 날을 느낀다



선비作



소녀장사

최 * 영


소녀였었지
하늘하늘 치마 입고
피식피식 웃으며
입술 삐죽이며
소녀였었지

소녀는 엄마가 되어
바지를 입고
박장대소하며
눈을 부라리며
아줌마가 되었지

한 달에 두 번,
그 아줌마는 라운드를 나가
그 소녀를 만난다

하늘하늘 치마 입고
꽃 사진을 100장씩 찍으며
그 소녀를 만나 잔디를 밟는다.

소녀인 줄 알았는데
드라이버 스윙은 소녀장사
화이트 티로 가실게요~



선비作

나의 꽃

이 * 라

봄꽃이 만개하던 때에
딸아이랑 이별을 했다.

꽃은 나무에서 나오지만
때가 되면 나무를 떠난다.
꽃잎이 나뭇가지에 딱 붙어 있을 때
나무도 나도 좋았다.

꽃이 떠날 때
슬퍼하는 쪽은
나와 나무다.

되도록 꽃을 오래 붙잡고 있고 싶지만
딸은 떠난다.
너무 짧아서 아름다운가!



선비作

안성베네스트

윤 * 성

새로운 시작의 축제가 여기에 왔네,
봄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네.

작은 씨앗이 흙 속에서 깨어나듯,
설패이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네.

바람이 부드럽게 속삭이고,
새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네.

우리의 마음은 봄의 축제에 초대받은 것처럼,
설패이 넘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네.

봄의 향기가 우리를 감싸고,
새로운 모든 것이 시작될 준비를 하네.

설패이 넘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춤추고 피어나네.



꽃비

이 * 인

꽃비가 내린다.
긴 겨울 추위에
옷자락을 굳게 단았던 땅 위에.

땅은 옷자락을 살포시 젖히며
하늘에서 사뿐히 내리는 꽃비를
소중히 맞이한다.

기나긴 추위에 한편의 자리도 내주지 않던
땅은 꽃비에겐 다 내어준다.

이제 다시 봄이다.
꽃비가 다시 봄을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선비作

봄 날

박 * 주

벚꽃잎이 날리는 화창한 봄날
볼에 스치는 서늘한 바람도
기분 좋고

서늘한 바람과
벚꽃 눈을 맞으며
좋은 친구들과 골프장 필드에서
나이스 샷을 날리는 기분은
봄날 최고의 기쁨 중 하나

초록 잔디 위에서
버디라도 하나 나오면
그 순간의 짜릿함은 어디에 견주리

오늘 비 소식이 있었으나
필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발길은 무겁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연습장에서 또 한 샷을 날리리라



선비作

베네스트의 봄, 티샷의 울림

이 * 민

티샷의 울림, 봄의 시작을 알리고
퍼팅의 마무리, 새 희망을 품게 하네.

홀인원의 기쁨, 봄의 축복이 함께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싱그러운 풀 내음, 따스한 햇살, 청량한 공기
모든 것이 완벽한 이곳, 바로 안성베네스트!


봄을 맞이한 이곳에서 골프를 즐기니
새로운 설렘과 시작이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이렇게 행복한 순간
설렘 속, 한 번의 스윙으로 시작된 여정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봄처럼 새롭게 피어나리.



선비作



인생의 봄

최 * 식

설한의 시련을 겪고 눈 덮인 산을 넘어
봄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리라

서리 꽃들이 서서히 피어나는 곳에서
추운 겨울의 기억을 잊고
따뜻한 봄의 품에 안겨 새로운 시작을 꿈꾸리라

삶이란 여정의 절반을 지나
조금은 쇠약해진 몸을 견디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리라

한 살 더 늘어간 삶을 읊으며
지나간 이별의 아픔을 날려보내며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리라

오색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열망을 싹 틔우며
인생의 봄이 다시 시작될 것을 믿으리라

동고동락의 벗들과 함께 새로 난 길을 걸으며
봄바람 속에 새로운 꿈을 품으리라



봄

김 * 연

봄이여, 사랑의 꽃을 피우는 때
청춘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간
회한을 걷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봄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청춘의 파도에 흔들리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가질 것이다

회한과 어둠이 끼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빛나리
희망의 노래를 안고 달려가며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장려作



나의 봄

홍 * 연


시린 나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어준 당신

어두운 나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어준 당신

불안한 나의 마음에
튼튼한 힘이 되어준 당신

겨울 같던 나의 인생에
따듯한 봄처럼 와준 당신

당신이라는 봄이 내게 왔으니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울게요



장려作

안베(안성베네스트)

김 * 종


안베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아름다운 칠현산 아래서
내가 보아 주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

안베가 말을 걸었다
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
꽃들과 바람과 인사하며
내게 늘 말을 걸고 있었다

안베가 환하게 웃는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지만
비바람 눈 피해 가며
우리에게 늘 웃어주고 있었다
내가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장려作



설렘

송 * 애

겨울 지나 잠자던 봄이 깨어나면
세상은 알록달록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다가오는 봄 때문에
나도 너도 세상도 설렘으로 가득해

누런 잔디도 연 초록색으로 갈아입고
메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연핑크색 꽃으로 만발
어느 누가 보고 설레지 아니할까

지금 이곳에도 ..
연초록 잔디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여기저기 사이사이
알록달록 공들이 숨어있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만 같은 계절
봄이 나는 제일 설레네.



장려作

봄꽃

조 * 오

봄 햇살에 싱그런 이슬이
반짝이는 그대 눈망울처럼,

알알이 터지는 꽃망울은
설레는 눈빛에 비치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잎
내 마음속 미소로 머금어지네.



장려作

흰점

박 * 수

이리가든 저리가든
무엇이 중요하리오

하늘을 가르는
저 흰 점 하나면
내 마음 나빌레라

오늘도
초록 바닥에
흰 점 몇 수 두고 갑니다

좋은 추억 가득한
오늘을
내 마음에 접어두고



장려作

홀인원

이 * 석

초록이 조금 이른 잔디지만
언제나 시작은 설렘이다

그런데 이내 마음이 먹구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벌써 절반이 후딱이다
반주와 수다 한판으로
집 나간 멘탈을 다시 잡아본다

역시나 그래도 멘붕이네
마음을 비우고 16번째 티샷

이게 웬일인가
다 같이 기뻐 난리가 났다

역시나 골프는 아무도 모른다
기쁨의 세리머니는 안성에서 즐겨보련다



장려作



봄날의 벚꽃

이 * 경

내 마음은 봄날의 벚꽃처럼,
산들산들 불어오는 꽃잎처럼, 아름답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사랑의 파도 속,
찰나의 감정에 어찌 그리 기뻐했던가

덜컥 다가온 이별
이젠 무의미해진 아름다운 절망의 시간들

재회의 희망은
앞사귀를 품은 바람이었다

스쳐 지나간 풀 내음 뒤로
내 안에 피어나는 그대의 모습

내 마음은 봄날의 벚꽃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철새처럼,
청승스럽게 아름답다

한 해 한 해 봄날의 벚꽃은 다시 오지만,
아무리 아무리 기다려도
그대는 오지 않는가 보다

벚꽃 머무는 풍경에
잠시 머물러봅니다

장려作



설렘

김 * 경

아직 피지 못한 게으른 영산홍은
터질듯한 입술을 깨물고 있네
이십 년을 보아온 베네스트의 산천은
지루함을 모른 채 시간을 머금는다
조금 있음 황매화도 유채색으로 물들이며
온그린 못한 내 초록색 볼을
비아냥대며 미소 짓겠지?
언제나 늘 설렘으로
이곳에도 전하며 오고 있다
또 기다림의 미학을 훑치며
내일도 돌 틈에 핀
꽃잔디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대하면서~~



장려作



인생의 봄

이 *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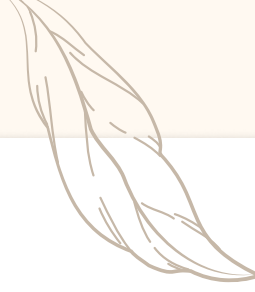
쉼 없는 순간순간
언제 멈춤이 있나 했더니

공에 열중하고
일에 매달리며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순간에 멈춤을 느끼며

매 순간 멈춤이 있음을
새삼, 인생의 봄이 찾아오네



장려作



라운드

양 *

들판 가득 일렁이는
봄꽃에 등이 가려워
오늘도 바람을 불러본다.

아스팔트 위에 씨를 떨어진 나무도
봄을 기다리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하루를 숨기려
연신 바람을 또 쫓아댄다.

한 달에 한 번은
넘겨줘야 하는 빈방의 달력처럼
세월은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도

봄의 추억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

둥글게 둥글게 돌며



장려作

봄을 찾아서

김 * 주

어디에선가 들려주듯이
누구가 그랬지
겨울바람 속에 푹푹한
싱그러움을 찾아서

한여름 속 무더위를 견디고
가을바람의 스산한 쓸쓸함을
옷깃 속에 남몰래 숨기고

설경과 눈꽃을 빚어낸 맹추위가
한 알 한 알 알알이
싱그러움을 품은 채

어느 날엔가 마침내
봄의 자랑스러움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맞이할 테니

흑백 설경의 향연은
토닥토닥 서운치 않게 달래어
바래다 주기를



꽃으로 찾아온 님

한 * 우

까칠한 님이 떠난 자리

얼음이 덩그러니

남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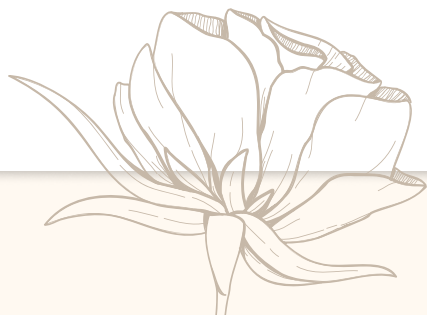
싱그러운 봄 손님이 오시니

님 떠난 자리에 진한 꽃들이

피어나네.

희고 고운 색으로 내 맘 천지에

가득하네.



장려作

나의 처음 가족

구 * 라

구슬치기 딱지치기 사방치기
모여놀던 추운 겨울
기분 좋은 노오란 개나리꽃 피면
쑥 캐고 냉이 캐며 함께 즐거웠지.


시간이 흐르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가정을 돌보느라 잊고 살았던
내 동생들.

봄을 열어주던 개나리꽃도
이제는 기억에서 멀어지고
어느샌가 화려한 벚꽃들이
봄소식을 전해주네.

동생들아 벚꽃이 피었구나~!
다시 모인 우리들,
이젠 동네 골목 대신
초록빛 잔디 위 봄 햇살 아래서
그때처럼 즐겁고 행복하다.

소중한 나의 맨 처음 가족~!





침묵

지 * 진

똑딱이 할 때가 엇그제였는데
백돌이 칠 때가 엇그제였는데
이제 좀 친다고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하네

다른 와이프는 폼도 이쁘고
옷맵시도 이쁘고 골프도 찰 치는데
왜 우리 와이프는 말도 안 듣고
운동신경이 없는 건가

골프장 갈 때는
즐겁게 재잘재잘 떠들면서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서로 침묵 속에 올라가네

또다시 다짐을 하네
와이프랑 골프 칠 때는
침묵이 최고라는 것을...



장려作

안성베네스트의 봄

정 * 현

새벽녘 안개가 나를 뒤엎어 갈피를 못 잡다가
황금빛 햇살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네,
안성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맞이하는 꽃들의 향연.

녹음이 푸르른 잔디는 내 마음의 푸르름을 더하고,
꽃들과 나비들이 춤추며 노래한다.

나의 스윙은 봄바람을 휘저으며,
나의 심장은 펄떡이듯 자유롭게 뛰논다.

두 발은 푸른 잔디 위에,
나의 공은 홀컵을 향하여 날아가고,
나는 이곳에서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는구나.

이곳은 싱그러운 봄날의 안성베네스트,
나는 봄날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순간을 즐긴다.



장려作

나의 하루

김 * 희

바쁜 하루를 보낸 오늘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으니
황홀한 빛을 내뿜으며
저물고 있는 태양이 나를 비춘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 들으며
아스팔트를 위를 내달린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듯
가로등이 켜지며 내길에
빛을 더해주고

쉬며 가라고 신호등이 멈추라고 한다
문득 다시 하늘을 보니
초승달이 수줍은 얼굴을 내민다.

매일 친구처럼 배웅과 마중을 해주는
하늘 위의 친구들
난 친구들의 응원과 함께 다시
에너지를 얻는다



장려作



이 봄, 조금만 천천히

최 * 화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불품없던 맨몸으로
싸늘함을 견뎌내야 했던 계절

추운 바람 속 움츠리던 씨앗들
때 이른 따스함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해마다 치러내는
피고 지는 손님맞이
한 줌의 별에 깃들인 생명을 마신다

봄이 내려앉은 나뭇잎들
조금만 무거워도 좋으련만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들썩들썩
가볍디가벼운 무게로
계절의 무거움을 담아낸다

돌아설 곳 없는 봄
소리 없는 빛으로 부서져 내리고
침묵의 시계는
그렇게 우리 곁을 지나간다

이 봄, 조금만 천천히

다시 봄이 오리라
언제나 그래왔듯이



장려作

봄꽃처럼

박 * 욱

봄꽃처럼 은은한 향을 내기를

봄꽃처럼 화사한 빛을 내기를

긴 겨울 지나 꽃 핀 봄꽃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는 꽃피우길



장려作

이팝나무

양 * 옥

겨우내 온 세상을 뒤덮었던
하얀 눈이 엇그제 같은데
울긋불긋 온갖 종류에 봄꽃들이
세상에 만발한데 오직 너 하나만은
계속해서 하얗게 머물러
겨울을 보내주기 싫은 모양새구나!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니
변하지 말고 내 눈에 하얀 눈으로
남아주렴 이팝나무야~~~



장려作

ANSUNG BENEST

GOLF CLUB